

교회소식

- 제직회 공고: 오늘 친교 후 분당.
안건:재정 보고, 당회 결의사항 보고 및 각 부서 사역 계획 보고.
- 교육부:
 - Princeton Volleyball Tournament for **Youth Group**
Date: 5/11 (Sat)
Location: Rockland State Park
Please come and spend time watching volleyball, cheering for the students, and enjoying a BBQ!
- 매일성경 5/6월호 나왔습니다. 권당 \$6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5월: 신미라 권사, 최은정 집사
다음 주 대표기도: 송은주 집사 (시 23)
이번 주 친교: 권혜순 집사, 구자금 목사
다음 주 친교: 김동수 장로, 서영수 장로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4월개강)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 **Acts 1:4-8** ----- Pastor Kim

Sermon ----- **“You Will Be My Witnesses!”**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Together

Closing Praise ----- “I Need You More” ----- Togeth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303장(통404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 다함께

Hymn My Life Flows Rich in Love and Grace

대표기도 ----- 시편 30 ----- 송성현 집사

Prayer Psalm 30

찬양 -----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시 119:169-176** ----- 인도자

Word of God Psalm 119:169-176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말씀대로”**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205장(통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 다함께

Hymn Tell Me the Old, Old Story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주일 말씀

시냇가에서 시편 1편

시편에는 갖가지 상황에서 불렀을만한 노래와 기도들이 담겨있습니다. 슬프거나 기쁘거나 하나님께 올릴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배 때 불렀던 노래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전 문 앞에서 불렀을만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 15, 24 등이 대표적이고 종려주일에 함께 읽었던 시 118도 그렇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문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선포하고 자신을 살핍니다.

그런데 “의인들이 이 문을 들어가리라”는 선언, 악을 행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와 거룩한 곳에 설 것이라는 선언은 그 문을 통과할 자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뿐이라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깨끗합니까? 오히려 그 문에 들어오도록, 하나님 백성되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라는 기도와 찬송, 은혜와 감사의 세계 앞에 서 있는 문과도 같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복있는 사람.” 복있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보다는 복이 있다는 선포에 이어 어떤 복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시내는 눈에 안보이는, 믿음으로만 얻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심겨 옮겨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은혜가 생명입니다. 거기가 좋습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늘 결실 철은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 문 앞 무화과에서 찾으신 것도 다 익은 과실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열매였습니다. 때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영광이 힘이라면, 노인의 백발도 영화의 면류관입니다(잠 16:20). 한 철만 노리다가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됩니다. 철 좋아 보이는 곳 찾아다니다 허망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상황이라도 유익합니다.

읽이 마르지 않습니다. 윤택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가지처럼 강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그러워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생존하려고 최대한 잎을 줄이고 단단히 한 것이 가지입니다. 햇빛을 받고 산소를 내뿜어야 할 잎이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니 그렇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눈에 물기가 안 보여도 믿음으로 은혜에 닿아있기에 넉넉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시냇가가 좋지 않으면, 악인의 꾀가 그럴 듯해 보입니다. 죄인의 길이 옳게 보이고, 교만한 자의 자리가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 높여주던 그 자리가 금방 조롱받는 자리가 되고, 틀림없을 것 같았던 꾀와 길이 자기를 옹아매는 함정이 됩니다. 다른 꾀와 길,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보지만 허망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거입니다.

심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매일 내리시는 주님의 판단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못마땅한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듭니다. 천국이 기쁘리 없습니다. 시냇가가 묶여있는 자리처럼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즐겁고 모든 때에 따라 은혜를 누리고 철에 맞게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 이 복된 삶에 듬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가 이 삶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Memo